

법회 안내

광도사(02)979-5183
 정기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어린이법회 매주 토 오후3시
 경전법회 매주 금 오전10시
 약수사(051)555-4332
 인등기도 1~3일(음) 오전10시130분
 지장재일 18일(음) 오전10시130분
 영주암(051)754-2210
 산중기도 1~3일(음) 오전10시
 육바리밀 매월 6일(음) 오전10시
 연등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오전10시
 대인정사(0334)675-7707
 정기법회 매주 금 오후7시
 산중기도 1~3일(음) 오전10시
 인등기도 매월 15일(음) 오전10시
 사경기도 18~24일(음) 오전10시
 반야회 매월 첫째 토 오후7시
 공덕회 매월 18일(음) 오전10시
 보현사(0391)42-9437
 일반법회 1·15일(음) 오전10시
 등명력가사(0391)44-5475
 일반법회 1일(양·음) 오전11시
 화안사(0392)33-5827
 통합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
 관음사(0392)33-2688
 어린이법회 매주 토 오후2시
 중등부법회 매주 토 오후3시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오전10시
 일반법회 3·15일(음) 오전10시
 사문선원(0394)31-3125
 초하루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
 보름기도 매월 15일(음) 오전10시
 대원사(0394)33-2603
 산중기도 1~3일(음) 오전10시
 보림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오전10시
 삼익사(0394)31-4082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일반산도 매월 22일 오전11시
 보리원(053)582-7611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일 오후2시
 가족법회 마지막주 일 오전11시
 다보사(0613)34-4201
 산중기도 1~3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오전10시
 관음기도 매월 24일(음) 오전10시
 천진암(0685)92-0533
 초하루법회 1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오전10시
 가족법회 매월 첫째 일 오전11시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단체는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미국 뉴욕주립대학 박성배 교수

“한국불교의 발전가능성은 무한합니다. 개인과 불교전체, 그리고 사회에 불교의 근본세력을 심고 가꾸려는 노력을 계속해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이뤄내야 합니다”
 지난 69년 미국에 건너가 불교학을 공부하고 현재 미국 스토니부룩 뉴욕주립대학교에서 불교학을 강의하고 있는 박성배 교수는 지구촌

명할 수 있어야만이 진정한 세계화라 할 수 있습니다”
 젊은층의 신도도 많이 늘고, 사찰 시설도 눈에 띄게 개선되는 등 한국불교의 발전상에 매우 흡족해 하는 박교수는 그러나 “예전만큼 강한 구도열은 많이 사라진 것 같다”며 우리의 훌륭한 수행종도가 사라져감을 아쉬워 했다.

“불자 모두 불법씨앗 되어야죠”

시대에서의 한국불교 세계화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세계화가 곧 서구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신비주의적인 논리로 불교를 알리려 한다면 세계화는 성공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세계화는 곧 무상·무아의 근본 진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사교와 논리적 전개를 바탕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불교의 진리를 설

내년 3월 동대서 강의

박교수는 내년 3월부터 동국대 강단에 설 예정이다. 동국대가 1년간 석좌교수로 초빙하고 박교수가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
 “체용(體用)논리와 돈점(頓漸)논리에 대한 연구를 심도있게 해 불교생각입니다. 물론 강의도 신명나게 하고, 그동안 썼던 논문들을 출판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고국에 헌신하고 싶은 진정한 불교학도의 길을 가고 싶다는 것이 그의 소망이다.

동대 학술회의서 만만두 석학



한스 슈바르츠 교수(독일 레겐스부르크대학 신학)는 이번 동국대 국제학술대회 참석자중 유일한 신학자다. 그러나 그는 불교사상이 아날로 세계를 평화롭게 할 수 있

독일 레겐스부르크대학 슈바르츠 교수

는 근간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서양에서는 불교를 새로운 종교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탓입니다. 그러나 불교의 연기사상은 기독교 등 서양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훌륭한 조화의 논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불교의 자연관은 현대의 환경

상을 받아들여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비단 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적 존귀함을 일깨우기 위해서도 말입니다”
 불교와 기독교가 각기 다른 문화를 만들어 가며 인류발전에 공헌하고 있으나, 불교는 풍부한 전통을 바탕으로 자연의 아름다움과 조화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

“서양도 연기사상 받아들여야”

참가자중 유일한 신학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는 자연을 창조된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것으로 보는 반면 서양에서는 인간을 위해 창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연과 인간의 조화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젠 서양에서도 불교의 연기사

한 슈바르츠교수는 서양은 바로 이러한 불교적 관점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슈바르츠교수는 신학자답게 불교와 기독교의 상호존중을 통한 다각적인 교류가 이뤄지고 그래서 온 세상이 평화롭게 기대하고 있었다.
 한명우 기자

“인터넷에 자료 올려 불교국제화 추진”

조계종 불학연구소 소장 밀원스님



지난 22일 조계종 불학연구소 소장에 취임한 밀원스님(적조암 주지)은 “교학연구와 역경사업에 주력하면서, 세계화 시대를 맞아 인터넷에 불교관련 자료를 올려 한국불교의 국제화를 이룩했다”고 강조했다.
 74년 자공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스님은 공군사관학교 군종실장을 역임했다.

게시판

행사 하루첫집=대한불교교장인포교회는 오는 11월3일 종로1가 셋터첫집에서 제2회 하루첫집을 연다.
 (02)738-5973

하루첫집=성남불교산악회(회장 임선교)는 오는 11월9일 성남 단대동소재 하나다방에서 장학기금마련을 위한 하루첫집을 마련한다.
 (0343)46-3871

학술 불교TV 이인성PD가 오는 11월2일 오후 3시 서울 해군회관 본관에서 신명진씨를 신부로 맞아 화축을 밝힌다.



군위로 2천만원 전달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사진)은 지난 23일 1군사령부 방문, 설성스님(종회의장)의 위촉을 받아 1천만원의 기금을 전달했다.

는 11월1일 오후 5시 동보성에서 평불협 임시총회 및 출소 2돌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대불청 강원 청년대회 참석

원형 삼화사 주지는 대불청 강원지구 12개지회가 지난 20일 원주시 치악명공원내 운동장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제13차 불교청년대회에 참석, 설립하고 격려했다.

성계동에 보현사 신축 기공

일관 코한사주지는 오는 27일 개원 13주년을 맞아 노인구상계동에 신축 부지를 마련하고 기공식을 갖는다.



평불협 임시총회 열어

법타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회장 스님(은해사 주지)은 오



복지법인 보리수마을 개원법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법인 보리수마을(이사장 시현) 개원법회가 지난 18일 강원도 양양 보리수마을 주차장에서 봉행됐다.
 보리수마을의 개원법회에는 총무원장 월주, 교육위원장 원산, 중앙총회 부의장 일면, 월정사 주지 현해스님을 비롯 황명수 동대총동창회장 이현수 중앙사시대표 등 사부대중 2천여명이 참석했다.

청담문화재단 설립



동광 도안사주지는 오는 11월15일 청담대중사 열반 25주기를 맞아 ‘청담문화재단’을 설립한다.

성동구민대상 봉사상 수상

법경 노인정사 주지는 지난 26일 성동구민회관에서 제3회 성동구민의 날 ‘성동구민대상 봉사상’을 수상했다. 스님은 양로원 고아원 소년·소녀가장 돕기로 사회복지분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6일 다보법회서 설립

송병욱 불교방송 총괄상무(해군동해사주지)는 오는 11월6일 다보법회에서 설립한다.

‘신동춘 전집’ 출판기념회



신동춘 전한양대교수는 오는 31일 ‘신동춘 전집’ 출판기념회를 프

예술종합학교 초대미술원장

오경환 동국대 교수(56·미술학)는 오는 97년 3월 개원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초대 미술원장에 내정됐다.

‘21세기 도전과...’ 번역 출간

연기영 동국대 교수(본지 논설위원)는 지난 18일 각국의 ‘21세기 도전과 전략’을 밀알출판사에서 번역, 출간했다.

“종파 초월 일불제자 운동 전개”

불교산악인연합회 창립추진위원장 손현수씨



유를 창조한다는 신념으로 산악회의 전국조직망 구축에 전심전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여년을 한결같이 아차산을 오르며 부처님법 실천에 앞장서 온 손현수위원장은 또 “종단을 초월한 일불제자 운동을 통해 각 산악회간의 이해관계 및 시대적 조류에 편승하지 않는 순수한 재가 수행결사단체로서 활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협의회 구성을 통해 지역감정해소에도 한몫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손현수위원장은 각도지부 산악회가 중앙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고 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회원을 확보해 내년 4~5월경 창립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필선 기자



성라실버타운 원장취임 및 입주식

사회복지법인 성라원(이사장 법사)성라실버타운 원장 취임 및 입주식이 지난 24일 경기도 가평 성라실버타운 소극장에서 봉행됐다.
 총 3개동 96실을 갖추고 있는 성라원 원장으로 정덕스님(자비외전화 회장)이 취임한 이날 행사에는 보리수마을 이사장 시현, 김을복지관장 제원스님을 비롯 이현직 가평군수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했다.



대구 개인택시 불교 정법회 10돌행사

대구직장불교연합회의 소속 단체인 개인택시 불교정법회(회장 김주봉)가 지난 20일 창립 10주년을 맞아 팔공산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동화사주지 무공스님, 직불법회원, 정법회 가족 등 사부대중 7백여명이 동참하여 정법회의 탄생 10돌을 축하했다.

생활 속의 불교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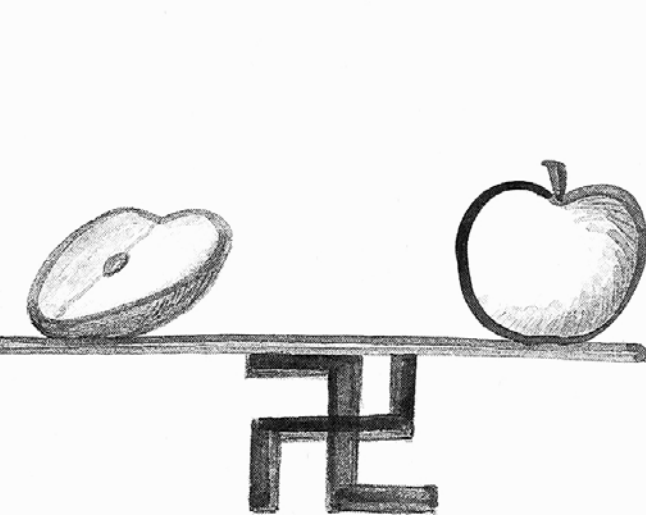
주연 배우만 박수를 받는 것은 아니다.

태어나서 한 세상 살다 가는 모습은 대체로 비슷하다. 육신의 삶은 생·로·병·사의 테두리 속에 있고 정신의 삶은 울고 웃는 오욕철정의 연쇄고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한 철을 떠도는 나그네와 같다고도 한다. 길을 떠나 여기 저기 떠돌다가 땅거미가 질 무렵이면 잠자리를 구하는 나그네의 삶과 진배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점을 선듯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보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떠돌다 가는 나그네 일까보냐 한다.
 삶의 구석을 들여다보면 인생역정은 참으로 복잡하다. 발걸음 걸음마다에 희노애락 우비고뇌가 마치 바늘 땀을 흐르듯 침철되어 있다. 그것이 얼마나 처절한지, 저 날이 새고 지는 자연의 힘이 아니라 인간의 욕정 때문이라는

말을 할 정도에 이른다.
 나아가 우리는 삶의 마디마디에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한다. 성공과 실패라는 명패도 붙여보고 높낮이도 매겨보고 우열을 갈라보기도 한다. 그리고 거기에 찬사와 지탄, 박수와 외면, 존경과 멸시 같은 부상(副賞)을 곁들여 주기도 한다. 그렇게해서 우리들의 삶은 서로 비슷비슷한 나그네의 삶이 아니라 천차만별 가지각색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채색된다. ‘위대한 아무개’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필부필부도 그렇게 정의되어 버린다.

도리를 깨우쳤다는 선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진시황도 나폴레옹도 한낱 뜬 구름에 불과한 존재가 된다.
 거만(巨萬)의 부를 쌓았다해도 그 부는 물거품이 되고 경국지석의 미모라 해도 그건 환상 속의 허깨비 놀음에 불과한 것이 된다.



이 모두가 다 한 철 나그네의 들놀이 같은 것이요 아이들이 소꿉놀이 하다가 땅거미가 찾아들면 제기감 흩어져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나는 도리를 알고 갈 곳을 보는 선사들의 말이 그렇다면 인생은 과연 무엇일까. 선사들의 대답은 이러하다.
 ‘그건 연극배우의 연기와 같은 것이다’

연극 배우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이든 일단 무대에 올라간 이상 배역을 탈탈 수는 없다. 그에게 자유와 권리가 있다면 오로지 전심전력을 다해 맡겨진 배역을 충실히 소화해내는 것 밖에는 없다. 물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번듯한 역할을 희망할 수는 있다. 그러나 거지 역이 되었든 왕의 역할이 되었든 한 막 연극이 끝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줄을 뻔히 알기 때문에 배우들은 주어진 배역을 열심히 소

화해 낸다. 그게 배우다운 삶이요 명배우의 모습일 것이다. 선사들의 대답은 바로 그점을 암시한다.

TV 연속극을 보노라면 주연급 보다는 조연배우의 연기가 더 돋보일 때가 있다. 인기 드라마의 여러 장면에서 때로는 조연이 더 많은 박수를 받기도 한다. 그런데 만약 그 조연배우가 제 역할이 싫다고 대중대중 넘어가려 했다면 어떻게 될까. 박수는 커녕 실적이 그를 기다리게 될 것이다. 배역을 받는 입장에서는 출발부터 비중있는 역을 원할 것이다. 그러나 주연급에 캐스팅되지 못한 것을 실패요 열등이라 할 것인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배역일 뿐이다. 그걸 실패라고 말한다면 그런 사람에게 불행은 이렇게 가르친다.
 실패한 배역에도 박수는 있다고

협찬 : 임경순·강금순